

성화대·한세대 관계자 내주 소환

'자살 강사' 수사 확대... 학교에 교수 채용 명단 요구 논문대필 교수도 곧 소환... 교과부 현장 조사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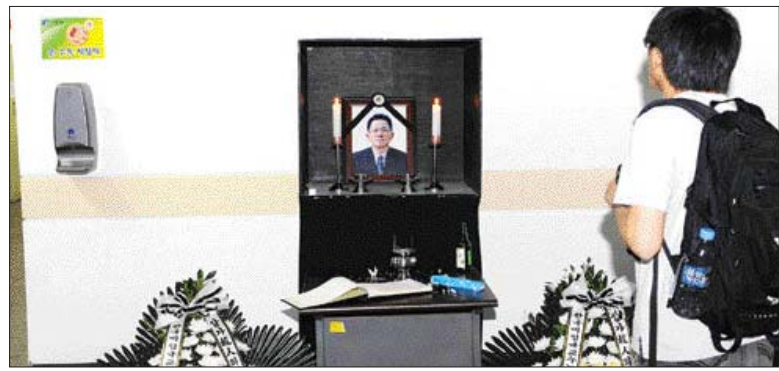
교수 채용 대가로 돈을 요구받았다

경찰은 이들 대학의 금품 요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 관계자들을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서부경찰은 28일 "서씨가 남긴 유서를 바탕으로 교수 채용과정에서의 금품 요구 여부와 논문대필 의혹과 관련해 해당 대학 관계자를 소환하는 한편 서씨의 이메일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씨가 유서에서 "교수 채용 대가로 각각 6000만원과 1억원의 돈을 요구받았다"며 수사를 의뢰한 강진 성화대와 경기도 군포시 한세대학교의 교수 채용 관계자들을 상대로 내주부터 소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교수님과 함께 쓴 논문이 대략 25편 함께 발표한 논문이 20편, 교수님 제자를 위해 쓴 논문이 박사 1편, 학진(학술진흥원) 논문 1편, 석사 4편, 학진 발표 논문이 4편입니다"라는 유서 내용에 주목, 서씨가 쓴 54편



28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인문과학대학 1층에 마련된 이 학교 시간강사 서모씨의 분향소에서 한 학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의 논문 대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서씨가 자살직전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조선대학교의 관련자들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서씨의 유서에 거론된 대학 3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신의 이름을 넣은 사실이 밝혀지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서씨가 유서에서 논문 대필 사실을 주장하며 "처벌해 달라"고 밝힌 조선대의 지도교수에 대해서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논문에 자

비위 경찰관 징계 7월부터 계급강등

경찰관이 비위를 저지르면 7월부터는 계급이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28일 "정직보다 한 단계 높고 해임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에 강등을 추가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징계령과 경찰청 예규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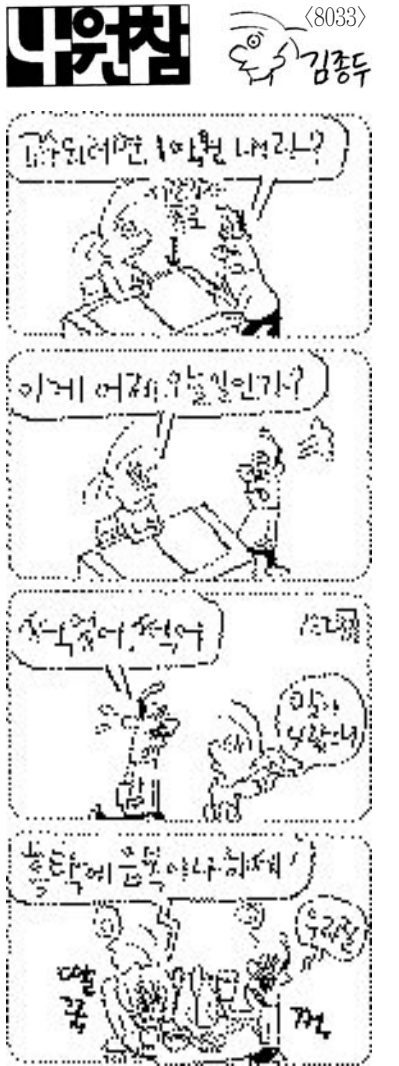
경찰은 지난해 4월1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경찰공무원법이 의원입법으로 3월22일 개정된 가운데 경찰공무원징계령은 17일 법제처 심사가 끝나 다음달 3일 차관회의, 8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내달 21일 열리는 경찰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경무관 이상은 경찰청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강등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으며 총경과 경정은 경찰청장이, 경감 이하는 지방청장이 각각 강등 징계권을 갖도록 했다.

강등 징계를 받으면 계급정년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고려해 강등 처분을 받더라도 예전 계급정년을 유지하게 했다. 경정 이상부터 정해져 있는 경찰 계급정년은 경정 14년, 총경 11년, 경무관 6년, 차관급 4년 등이다. 퇴임을 1년 앞둔 13년차 경정이 경감으로 강등되더라도 계급정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1년 뒤에는 퇴임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공무원법이 이미 개정된 터라 징계령과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통과되면 법령 개정이 마무리돼 7월부터는 강등 처분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수시장 후보 비방 전단 뿌린 70대 검거

여수경찰은 28일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7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돌산읍 청솔아파트 주변에서 모 여수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이다.

전단에는 여수시 관광조성사업과 관련해 국장이 잡적한 사건, 수백억을 들인 이순신 광장 등 웅천생태터널 조성 사업 등에 뒷선의 비리 연관성을 제기하는 등 모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특정 후보 측의 부탁을 받아 이 유인물을 살포한 것이 아닌가 보고 배후를 캐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천안함 좌초설' 제기

신상철위원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 해군 장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와 소환된 민·군 합동조사단의 신상철위원을 28일 오후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신 위원이 천안함 침몰 원인이 좌초라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관련 자료를 받았다.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 대표인 신 위원은 지난 3월 모 언론에서 공개한 해군의 작전지도 사진에 '최초 좌초'라는 문구가 적힌 점 등을 이유로 천안함은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신 위원은 이날 조사에 앞서 "해군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피격되지도 않았는데 피격됐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다. 조사위원으로서 좌초와 폭발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폭발로 인한 것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내 여친이 남자? 트랜스젠더 살해

경북 경산경찰은 28일 연애상대방이 트랜스젠더인 것을 뒤늦게 알고 격분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3일 오후 대구시 남구의 한 여관에서 연애상대방인 김모(2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김씨가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차례 폭행한 뒤 경찰서에 있는 한 하천의 독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이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4년여전 아르바이트를 하다 여성같은 외모를 가진 김씨를 알게 된 뒤 가끔 만났는데, "성별을 알 수 있는 접촉은 갖지 않아 상대방이 여자 남성이었는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 연합뉴스

5·18 30주년 결산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오월행사 시민 의견 물어라

'참여의 장' 조성 범국민 축제의 장 만들어야

5·18 순례지 '역사 기행단' 수백명 참가 호응

5·18 광주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가 2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부활제' 행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에초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5월의 진정한 의미와 역사성을 알리는데 큰 비중을 뒀으나 정치적 이슈와 사회적 현안문제에 밀려 그 의미를 살려내지 못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2010 민주대성회', '전국노동자대회' 등 일부 행사도 정치적으로 변질돼 논란의 불씨를 지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는 전국화와 지역화의 완성에 한걸음 다가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30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5·18 순례지를 둘러보는 '역사 기행단'을 모집, 수 백 명의 참가자들에게 5월의 역사와 상징성을 일깨웠다. 또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행사 기간 내내 '죽먹밥 만들기' 체험 행사를 열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아쉬운점은 행사위원의 노력을 무색케하는 저조한 참여율이다. 대대적인 민주축제가 되어야 할 30주년 행사가 시민들의 외면으로 큰 울림을 주지 못했다.

따라서 31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사 참여를 이끄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발굴해 오월 정신과 이념이 범국민적 시

민·사회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대 조정관 교수는 "5·18 행사가 5월 관련단체만의 것이 된다면 기념행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5·18 행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장현 한국 YMCA 전국연맹이 사장도 "행사 규모가 작더라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복발전소 행복문화사업단 유동훈 본부장은 "일회성 기념행사보다는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5월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내야 한다"며 "행사 기획단 계부터 각 학교나 직장 등에 공문을 보내 이들이 원하는 행사가 무엇인지 묻는 것도 시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ilee@kwangju.co.kr



심폐소생술 알아두세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김필식)는 28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이 학교 학생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 대처법을 현장 실습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3D·빔 프로젝터 잘 팔리고 지자체도 응원 채비

월드컵 열기 달아오른다

광주시, 내달 12·17일 월드컵경기장서 단체 응원

2010 남아공 월드컵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지역에도 월드컵 응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경기장면을 생생하게 즐기기 위한 소비자들이 늘면서 고가의 3D TV를 비롯한 대형 LED TV, 빔프로젝터 등의 판매량이 급증하는가 하면 각 지자체별로 단체응원전도 준비중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이달 들어 3D TV 판매량이 전월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또 단체 응원을 준비중인 회사나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식당가 등

의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옥션 관계자는 "30~40평 규모의 중소 식당이나 직원 단체응원을 하고 싶어하는 중소기업, 학원 등이 빔 프로젝터의 주 고객"이라고 전했다.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의 단체 응원 계획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월드컵 한국전이 열리는 6월 12일과 17일 양일간 오후 8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단체 응원전을 열 계획이다. 전남지역도 목포시청 주관으로 내달 12일 목포시 용당동 유달경기장에서 도민 응원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5·18 행사장서 몸싸움

5월단체 회원 둘 입건

광주서부경찰은 28일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몸싸움을 한 5월 단체 소속 회원 전모(49)씨와 이사 이모(48)씨를 각각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와 이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5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시청사 야외 광장에서 열린 '민중항쟁 30주년 부활제' 행사장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전씨가 "할 말이 있다"며 무대위로 올라가려는 것을 이씨가 막는 과정에서 말싸움 끝에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구름 덮힌 주말·휴일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은 구름이 많이 낀 흐린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은 29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서해안 지방으로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고 28일 예보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기소 교사 직위해제 서두르지 않겠다"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

민중노동당 가입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공립학교 교사들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조치와 직위해제 방침이 발표된 가운데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은 대상 교사들에 대

한 직위해제를 서두르지 않을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도교육청 감사담당자는 "일단 학기중이기 때문에 교사들을 직위해제할 경우 수업결손이 우려되는데다 교육감도 선거로 공적인 상태"라면서 "선거가 치러진 뒤 인사담당 부서

와 협의해 직위해제나 징계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도 교육청은 또 "해당 교사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 뒤 사실확인 등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직위해제 등 조치는 여름방학 때까지 미뤄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모두 5명의 공립교사가 파면 또는 해임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

박진표기자h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1분 해질 19시 39분 달돋이 21시 06분 달질 05시 59분

긴팔옷 날들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가끔 구름이 많겠다.

구분	기온	강수량
광주	흐림 14/24℃	
목포	흐림 14/22℃	
여수	흐림 14/20℃	
완도	구름많음 14/23℃	
구례	구름많음 15/25℃	
해남	구름많음 14/24℃	
장흥	구름많음 13/22℃	
고흥	구름많음 13/22℃	
순천	구름많음 14/23℃	
영광	흐림 13/22℃	
진도	구름많음 14/23℃	
전주	구름많음 13/23℃	
남원	구름많음 12/24℃	
홍산도	흐림 13/19℃	

지역별 날씨: 서울(맑음), 인천(맑음), 대전(맑음), 광주(흐림), 목포(흐림), 여수(흐림), 부산(흐림), 울산(흐림), 대구(흐림), 전주(흐림), 춘천(흐림), 강릉(흐림), 서울(맑음), 인천(맑음), 대전(맑음), 광주(흐림), 목포(흐림), 여수(흐림), 부산(흐림), 울산(흐림), 대구(흐림), 전주(흐림), 춘천(흐림), 강릉(흐림)

기상예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0(일)	31(월)	1(화)	2(수)	3(목)	4(금)
날씨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최저/최고	15/24	14/26	14/26	14/27	14/27	15/27